



New Territories, Rambler Channel, Tsing Yi, 2009

Andreas Müller-Pohle 안드레아스 뮐러 폴레

글 권지현 Kwon Ji-hyun

안드레아스 뮐러 폴레(Andreas Müller-Pohle)는 European Photography magazine의 편집장이자 미디어 아티스트이다. 지난 34년 동안 European Photography라는 잡지를 유럽에서 가장 정평 있는 예술사진 전문잡지로 일구어 내는 한편, 자신의 개인 작업도 꾸준히 해 왔다. 최근 Hong Kong Waters 《水光浮城》라는 사진집을 출판했고 내년 봄에는 중앙대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사진을 가르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곧 한국을 방문할 그를 만나 편집장으로서, 그리고 사진가로서 그의 생각을 들어보았다.

안드레아스 뮐러 폴레 Andreas Müller-Pohle

Andreas Müller-Pohle is a Berlin-based media artist and publisher. He studied at the Universities of Hanover and Göttingen, and in 1979 founded European Photography, an independent art magazine for contemporary photography and new media. His first artistic projects from the late 1970s focused on issues of photographic perception, and later on photo recycling, now also incorporating video. In his most recent works, he addresses the subject of water in portraits of the Danube River and Hong Kong. Müller-Pohle's works have been widely published and exhibited and are included in private and museum collections worldwide. As a publisher, Müller-Pohle has edited the major works of the media philosopher Vilém Flusser, available today in the 10-volume Edition Flusser and including the seminal Philosophy of Photography, which has been translated into over 20 languages. In 2001, Müller-Pohle was awarded the European Photography Prize from the Rein M De Vries Foundation. He is the author of numerous texts on photo theory and has been a visiting professor and lecturer at the Higher Institute of Fine Arts in Antwerp, Belgium.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www.muellerpohle.net.



Kowloon, Tsim Sha Tsui, 2009

EU

Q. 무엇을 공부했고 어떻게 사진가가 되셨어요?

A. Andreas Müller-Pohle (이하 A): 저는 원래 경제학과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만난 친구가 굉장히 실력 있는 사진가였고 그로부터 영향을 받아 사진을 접하고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지요. 사진을 알게 된 이후로는 학교 공부에 쏟은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사진관련 서적을 읽고 암시 작업을 하는데 보냈습니다. 1979년 대학을 졸업하면 때에 이미 제가 예술가가 되어 사진 관련 일을 하게 될 줄을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 친했던 두 명의 친구와 함께 European Photography를 창간하게 되었고 저는 편집장이 되었습니다.

Q. 지금까지 해 오신 작업의 주제와 방식이 참 다양한데 주로 작업의 모티브를 어디서 얻고 찾으세요?

A. 제 작업은 다양하고 다방면에 걸쳐 있습니다. 저는 한가지 스타일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제 작업의 원천은 항상 호기심에 있어요. 한 프로젝트가 끝나면 저는 곧 새로운 프로젝트를 찾아 나섭니다. 사진으로 작업을 하지만 반드시 사진 매체에만 국한되어 있기를 원하지 않고 비디오, 설치 작업도 사진작업 만큼 좋아합니다.

Q. 왜 Water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 최근 Hong Kong Waters라는 신작을 발표하시고 사진집을 출판하셨는데 이전 작품도 강에 관한 것이었어요. Danube River Project에 대해서 먼저 듣고 싶습니다.

A. 물에 관심이 간 연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예술적인 관심, 그리고 정치적, 생태학적 관심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물의 시각으로 지상과 물 속이 동시에 보이는, 분할된 화면을 이용한 작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Danube강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Danube강은 유럽의 역사에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지요. Water 사진을 찍을 때 단지 사진적 관점에서 작업을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생태학적 관점에서도 연구를 병행했어요. 실제로 사진을 찍었던 장소 중에 25군데의 물을 채집하여 독일의 연구소에 보냈었습니다. 그곳에서 나온 연구 결과를 알고 싶었고 그 결과들을 사진과 병행하여 전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진적 접근이었다기보다 좀 더 다방면에 걸친 멀티미디어적인 접근이었어요.

Q. Danube River Project와 새 작업인 Hong Kong Waters 프로젝트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지요?

A. Danube 프로젝트는 강의 초상사진이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반면에 Hong Kong Waters 시리즈는 도시의 초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프로젝트는 접근 방식이 달라요. Danube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강을 따라 가면서 작업을 했어요. 2860km가 되는 강의 근원부터 하류까지 전부 말입니다. 강의 지표가 되는 지점들을 선을 그리듯 따라가며 한번씩만 촬영을 했어요. Hong Kong Waters 작업의 경우에는 선을 그리듯이 따라가며 촬영을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지점에서 자유롭게 촬영을 했습니다.

Q. 왜 특별히 홍콩에 관심을 두셨어요? 새 작업에 대한 소개를 듣고 싶습니다.

A. 2004년에 처음 홍콩을 방문했는데, 방문하자마자 그 도시와 사랑에 빠졌어요. 나중에는 그곳의 사람들에게 반하게 되었습니다. 자주 홍콩에 가게 될 일들이 생기면서 그를 만나 편집장으로서, 그리고 사진가로서 그의 생각을 들어보았다.



Andreas Müller-Pohle